

나주, 광주·전남 최초 ‘청년 활력소득’ 지급

나주시가 광주·전남 최초로 시행한 ‘청년 활력소득’ 지급을 완료하며 지역 청년의 공공활동 참여와 지역 정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시에 따르면 광주·전남 최초로 청년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시행한 ‘2025년 청년 활력소득 지원사업’의 3분기와 4분기 지급을 모두 완료했다.

올해 총 874명의 24세 청년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고 만족도 조사에서 99%의 긍정 평가를 확인하는 등 청년들의 시정 관심도, 지역 소속감, 미래 준비 의지를 크게 높인 성과를 거뒀다.

청년 활력소득은 지역 행사 참여, 봉사활동, SNS 정책홍보, 청년 커뮤니티 활동 등 지역사회 공공기여 활동을 수행한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30만원을 지급하는 참여형

3·4분기 874명에 30만원...만족 99%·정착 의사 84%

윤병태 시장 “청년들 미래 준비...든든한 지원군 역할”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고 지역 정착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3분기에는 495명, 4분기에는 379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총 874명의 청년에게 모바일 나주시랑상품권 30만원씩이 지급됐다.

대상은 1년 이상 나주에 거주하는 2001년생 청년으로 활동 실적 제출과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시는 3분기 지급 대상자 49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331명 중 99%가 ‘만족’ 또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이 중 ‘만족’ 비율은 96%로 높게 나타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호응이 확인됐다.

만족 사유로는 시정 활동에 참여한 모든 24세 청년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접근성, 모바일 지역화폐 지급으로 인한 높은 활용 편의, 경제적 이유로 어려웠던 여가와 학업 등의 활동 참여가 가능해진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시정 관심도는 응답자의 89%가 “높아졌다”고 응답했으며, 지역 정착 의사는 84%가 “증가했다”고 답해 사업의 실질적 정책 효과가 확인됐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6



나주시는 최근 광주·전남 최초로 ‘청년 활력소득’ 지급을 완료했다. 사진은 제1회 나주시 청년의 날 행사 단체 기념사진 촬영 모습.

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도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윤병태 시장은 “청년 활력소득은 단순

한 금전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활동 참여와 지역 정착을 촉진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다”며 “광주·전남 최초로 시행된 청년 참여형 지원사업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

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환현 기자 pose007@gwangnam.co.kr

고흥,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지원 ‘첫 발’

문금주·서천호 의원 특별법 발의...법적 기반 마련

고흥군이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첫 발을 뒀다.

4일 군에 따르면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공동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 발의는 우주산업 인프라인 우주발사체 특화지구(고흥)와 우주항공청(사천)을 연계한 복합도시 건설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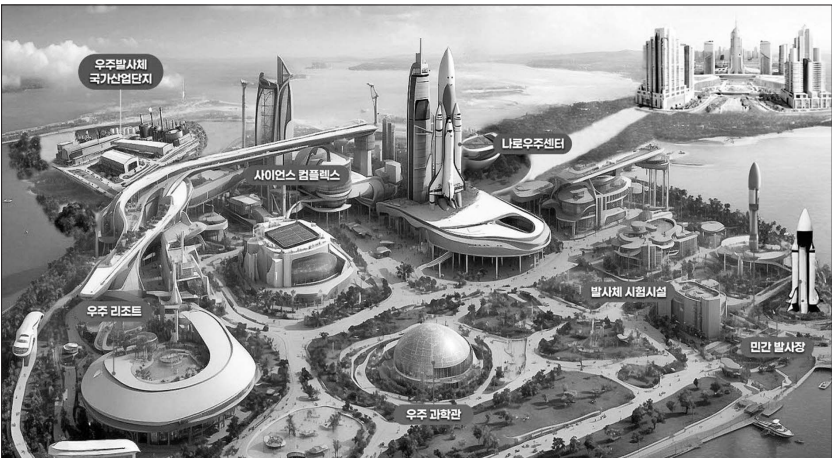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 내심의위원회·추진단 설치,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규정, 우주항공캠퍼스 조성·운영, 외국 교육기관 설립·연구기관·종합병원·대학 등에 대한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주기업 세제·자금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군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정주여건 개선과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요소를 담고 있어 특별법 통과 시 고흥은 획기적인 발전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특별법 발의로 고흥군이 추진하고 있는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우주항공 관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특례 조항들을 기반으로 고흥군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흥을 ‘글로벌 우주항’으로 도약시켜, 나아가 ‘대한민국의 스타베이스’로 우뚝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적인 우주산업 육성을 위



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고흥이 보유한 독보적인 자산인 발사 인프라를 비롯해 제2우주센터,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등을 통해 발사체 제조·테스트·발사·운영은 물론 재사용 발사체 등 차세대 발사체 기술 개발과 연구·개발(R&D) 집적화로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

획이다”고 덧붙였다.

군은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기획연구용역 완료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및 관련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속도가 있게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영광, 응급환자 이송 경비 지원 사업 ‘호응’

올해 3200만원 투입 188명 지원

영광군이 신속한 치료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응급환자 이송 경비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4일 군에 따르면 올해 영광 내 응급의료기관에서 타 지역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될 경우 응급차량 이송 경비 전액을 지원했다.

군이 확인한 결과 올해 총 188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32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군민들

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고, 이송비 전액 지원을 통해 응급의료 접근성을 강화시켰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전남에 지역적 한계를 해소했고, 신속한 전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지체없이 수도권 등 권역 내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군 관계자는 “응급상황에서는 1분 1초가 매우 중요한 만큼, 경제적 이유로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응급의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98@gwangnam.co.kr

함평, 14년간 ‘가족친화기관’ 지위 유지

생활안정 등 6대 분야 후생 복지 확대

함평군이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획득하며 가족친화 지역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알렸다.

4일 군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한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인증을 갱신했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해

가족친화 제도를 적극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되는 제도로, 근무 환경·휴가 제도·가족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 심사해 인증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014년 최초 인증 이후 2028년까지 총 14년간 가족친화인증기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완도,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안전환경 조성 앞장

여성·아동·돌봄 공백 해소...참여형 정책사업 추진 기대

완도군은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2026~2030)로 신규 지정 받아 최근 군청 현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향후 5개년 비전을 밝혔다.

현판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 이범우 부군수, 군의원, 군민 참여단, 여성 단체 등 관계자가 참석해 지정의 의미를 공유하고 완도군의 정책 방향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그동안 군은 여성·아동 안전 환경 조성, 돌봄 공백 해소·가족 지원 강화, 여성의 경제·사회 활동 참여 기반 구축, 군민 참여형 정책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군민 참여단의 현장 중심 협력, 군의회와 실무 부서의 정책 연계, 주민 주도형 성평등 실천 사업 운영 등 행정과

군민이 함께 만든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성 친화 도시’ 지정은 완도군이 그동안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점이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군은 앞으로 5개년 계획에 따라 생활안전 강화, 돌봄 확대, 여성 경제활동 기반 조성, 성평등 조직 문화 확산 등 군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 여길 예정이다.

또 현판식을 계기로 여성친화도시의 가치를 군민에게 공유하고, 더 많은 군민이 정책 과정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소통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우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군민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의미 있는 성과이다”며 “여성뿐 아니라 아이, 어르신,



완도군은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2026~2030)로 신규 지정 받아 최근 군청 현관에서 현판식을 기졌다.

장애인 등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친화도시는 성평등가족부가 지역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

등하게 참여하고, 여성 역량 강화와 돌봄과 안전이 실현되는 지지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5년마다 실적을 평가해 재지정한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광양, 겨울방학 돌봄 공백 최소화한다

아동 도시락 ‘배달 전담’ 서비스 가동

광양시가 겨울방학 기간 돌봄 공백 최소화해 나선다.

4일 시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한부모 가정으로 직접 도시락을 배달하는 ‘점심도시락 배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초등학교 1~4학년 100가구(신청순)이며, 운영 기간은 2026년 1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제공되

며, 1식 당가는 8000원으로, 총 30회에 해당하는 24만원은 신청 가정에서 부담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다.

광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MY 광양’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안내 포스터에 포함된 QR코드 또는 모바일 링크(https://naver.me/Goil8GGd)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 가족돌봄

팀 (061-797-269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희 광양시 여성가족과장은 “겨울방학 동안 식사 해결이 어려운 아동이 집에서 안전하게 도시락을 받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며 “가정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아이들이 규칙적인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한 만큼 많은 가정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단풍 아래서 펼쳐진 즐거운 공연. 최근 우리나라에서 단풍이 가장 늦게 물드는 솔로 시티 완도 청산도에서 주민 주도로 ‘단풍길 소풍’ 행사가 열렸다. 상수원 입구에서부터 지리 청송 해변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차량이 통제된 가운데 단풍길 곳곳에 노르딕 워킹, 인생 사진 촬영, 공연, 체험, 식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사진제공=완도군